

무안군 벼 수발아 피해 농가 군비 10억 지원

공공비축미 등외품 출하 포대당 5000원씩 추가

지역농협·민간RPC 출하 농가도 포대당 1천원

무안군이 벼 수발아(벼 이삭에서 썩어 트는 현상) 피해를 입은 농가 돕기에 적극 나선다.
무안군은 “벼 수발아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등외품으로 출하한 벼와 지역농협 및 민간 RPC 매입한 벼에 대해 군비 10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무안군은 지난달 벼 수발아 피해 전수조사 결과 2728ha(재배면적 9211ha 대비 29.6%)에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등외품으로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 포대(40kg)당 5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수발아 피해 벼 매입지

침은 잠정등외품 A(피해립 40%미만/40kg포대)가 2만5510원, 잠정등외품 B(피해립 60%미만/40kg포대)가 1만7010원을 우선지급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잠정등외품A는 2만5510원에 군비 5000원을 추가해 3만510원을 지급하고, 잠정등외품 B는 1만7010원에 군비 5000원을 더해 2만2010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방법은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기간인 지난 9일부터 12월31까지 등외품으로 출하한 농가에 대해 매입증명서를 확인한 후 내년 1월30일까지 지급한다.

무안군은 또 수확기 쌀값 하락으로 벼 생산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농협 및 민간 RPC에 벼를 출하한 농가에 계도 포대(40kg)당 1000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올해 대풍을 예상했는데, 뜻하지 않은 벼 수발아로 농업인의 고충이 큰 상태”라면서 “잠정등외품 매입 방침을 밝힌 정부에 협감을 더해 벼 재배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동현기자 idh@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새롭게 문을 연 무안전통시장이 상인과 고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탈바꿈 재개장

192억원 들여 8개동 신축...장옥 37개 점포 등 갖춰

무안군이 무안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개장식을 갖고 새롭게 단장한 장터에서의 첫 시작을 알렸다.
24일 무안군에 따르면 19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무안을 성내리 소재 2만1660㎡의 부지에 건축면적 4922㎡의 현대식 건축물 8동을 개설했다. 주요시설로는 상설시장 19개 점포와 식당 및 특판장 7개 점포를 비롯한 5일시장 장옥 37개 점포, 야외무대, 주차시설 202면 등 지역의 전통문화와 먹거리, 볼거리 등을 활용한 지역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조성됐다.
김장신 무안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상인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고객들을 맞아 무안전통시장이 제2의 부흥기를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단지 시설 현대화만을 통해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만큼 전통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정감 있는 분위기와 서민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낮은 가격 등 강점을 살려내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전통시장은 지난 1983년 개장해 30여년 동안 무안군민은 물론 인근 지역민에게도 생활용품 등 재화의 공급처로 역할을 해왔으나, 작은 규모와 노후된 시설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해 장이 열리는 날에는 인근 교통체증을 초래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무안=임동현기자 idh@

목포무안신안축협 전남 한우 경진대회 2년 연속 우승

조합원 5명 5두 출품

최우수·우수상 휩쓸어

목포무안신안축협(조합장 문만식) 한우농가 조합원들이 전남 한우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종합 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지난 18일 목포무안신안축협 일로가축시장에서 열린 제34회 전남도 한우경진대회에서 22개 시·군 77두의 암소가 출품된 가운데 무안 대표 한우들이 2015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종합우승을 했다.

특히 무안군 대표들은 5명의 조합원이 5두를 출품해 암송아지 최우수상(무안군 몽탄면 최용주)과 미경산우 최우수상(무안군 몽탄면 박운일), 번식우 1부 우수상(무안군 몽탄면 고봉석)을 휩쓰는 저력을 보였다.
한우개량은 단 시간내에 성과를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문만식(왼쪽 세번째) 목포무안신안축협 조합장이 제34회 전남도 한우경진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조합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우경진대회는 한우개량 가속화를 목표로 한우암소를 대상으로 개량 성과 평가와 개량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문만식 조합장은 “최근 시행된 김영관법과 한우고기의 소비 문화, 지속적

인 산지시세 하락 등으로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축협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한우개량 및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임동현기자 idh@

영광군 상낙월~송이~안만도 운항

여객선 지·간선 체계 시범사업 시행

영광군은 “송이도, 안만도 주민의 해상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 연안여객선 지·간선 체계구축 시범사업을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상낙월~안만 구간에 신해 5호 여객선

을 신규로 투입해 안만~송이~상낙월까지 운항하며, 기존 운항중인 섬사랑 12호 여객선에 환승한 뒤 상낙월에서 항화도까지 나오게 된다.
영광군은 여객선 입출항 시간에 맞춰 항화도에서 법성까지 신규 버스노선을 신설

하는 등 여객선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낙월~송이~안만 구간은 1일 1회, 낙월~송이 구간은 1일 2회 왕복 운항하고, 환승에 따른 여객운임은 환승 환인을 적용해 현재와 동일한 운임을 부담하게 된다.
영광군은 이번 시범 사업으로 송이, 안만 주민들이 낙월면사무소 방문시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 낙월면 주민들의 통합과 섬지역의 접근성 향상으로 섬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광=박형진기자 phj@

전국 고교 32개팀 참가

영광서 축구 왕중왕전

영광군은 “지난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영광 일원에서 ‘2016 대교높이 후반기 전국 고등 축구리그 왕중왕전’이 진행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축구협회 주관·주관하는 권위 있는 대회로, 서울 보인고과 경기 신갈고, 울산 현대고 등 전국 고등학교 32개팀 1200여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해 영광스포티움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5개 경기장에서 기량을 겨룬다.
영광군 관계자는 “경기에 질 경우 곧바로 집을 꾸러야하기 때문에 매 경기가 결승전처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흥미진진하고 생동감 있는 경기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관람객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신안군수협 을 위판고

1600억원대로 사상 최대

신안군수협의 2016년 위판고가 1600억원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수협은 24일 “올해 위판고가 21일 현재 1501억원으로 연말까지 16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위판고 1600억원은 1965년 신안군수협 창립 이래 최대치다. 이같은 위판고는 전국 92개 회원조합 중 최상위권이다.
신안군수협은 지난해에도 1517억원으로 부산수협(1812억원)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신안군수협 관계자는 “신안군 3300여명의 조합원들 덕분에 사상 최대의 위판고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최고수협이 되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신안군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신안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6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남 지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신안군은 이번 수상이 노인인구 증가와 의료급여 범위확대 등 지속적인 재정 부담 요인이 발생하는 환경 속에서도 의료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온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신안군은 육지보다 다양성이 많은 섬 의료급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에만 지역 내 2104명의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등 총 9억3000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한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번 평가기준은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및 가점으로 이뤄졌다. 자체평가 지



표는 전년대비 전체수급자 의료이용 증감률, 사례관리대상자 의료이용증감률 등이다.
고길호 신안군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방문 상담과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싸고 좋은 물건, 회사 사정상 매매합니다 ! 회사직거래 / H. 010-3605-5000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4.5.6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팻섬, 비금도내에 있는 섬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 매매-7억, 분할매매 가능

나주, 공산면 근린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42평 건물24평 창고15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매매 - 5000만원

장성, 동화면 전원주택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7680만원

구례, 산동면 대형모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대지573평 건물719평 4층건물
- 지리산 온천지구내, 객실58개
- 리모델링 준비중 (4억예산)
- 매매 - 협의, 감정14억

담양, 금성면 토지

-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 외 13필지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담양댐 하루 바로 옆
- 시세 33억, 매매 - 협의